

광주 인권마을 성과 공유하고 방향 모색

26일 5·18교육관서 성과 발표회
6년만에 15개 마을로 확대
인권캠프·지도·교육·문화제
마을 맞춤형 다채로운 프로그램

광주시는 26일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2018년 인권마을 성과발표회'를 열고, 올해 인권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인권마을 사업방향을 논의한다. '인권'을 주제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3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된 광주 대표 인권 거버넌스 사업이다. 마을 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배운 것을 통해 함께 마을을 들여다보며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인권의 가치가 주민의 힘으로 구현되

는 인권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3개 마을로 출발한 인권마을은 현재 15개 마을로 확대돼 인권교육, 인권문화제, 인권취약시설 개선사업, 인권지도 만들기, 인권캠프,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 등 마을별로 참여주민들이 주제를 정하고 실천하는 시민주도형 인권문화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했다. 매달 1차례 15개 마을이 참여하는 인권 마을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을 간 사업을 공유하고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활동가가 신규마을에 대해 멘토 역할을 하는 등 인권마을 간 협업모델을 구축했다. 마을별 주요사업으로는, 동구 밤실마을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권캠프 및 인권지도 양성교육을 실시했

다. 또 올해 처음 인권마을 사업에 참여한 동명마을은 인권취약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서구 풍암마을은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만든 인권문화제와 인권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금호마을은 매주 일요일 학교 강당을 개방해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놀이 활동과 마을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해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구 노대마을은 '인권을 다독하다'라는 주제로 인권에 대한 도서를 선정한 해설집 제작·배포 사업을 시행했다. 북구 문산마을은 인권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인권현안에 대한 주민 간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일곡마을은 성평등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 청소년 공모전 사업 등을 실시했다. 광산구 운남마을은 어린이 대상으로 마

을 어르신들이 노인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인형극단을 운영했으며, 수암마을은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인권강좌 운영 및 풍영정전 정화활동, 캠페인 추진 등 15개 마을이 마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권관련 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강의실에서 '신안연전 노예사건 재판이야기, 진실은 이길거라 믿었어'라는 주제로 제6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정규 변호사가 2014년 신안연전 노예사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재판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사와 인권활동가, 시민 등 참석자가 함께 발달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중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후원받은 의료용품을 광주진료소가 있는 캄보디아 캄풍스푸 卍 프놈 완낙 부부지사에게 전달하였다.

광주시, 캄보디아 캄풍스푸에 2억 상당 의료용품 전달

광주시는 광주진료소가 있는 캄보디아 캄풍스푸 주정부에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받은 2억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21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전달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전달한 의료용품은 수액세트, 휴대용 질경검사기, 재활관, 장갑 등 10개 품목, 1500여 박스이며 캄풍스푸 주정부가 받아 캄보디아 광주진료

소, 지역 보건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중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프롬 완낙(H.E. Prom Vannak) 캄풍스푸주 부지사, 아오 완텐(Dr. Or Vanthen) 캄풍스푸주 보건부장,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아시아희망나무 서정성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문화전당 전통문화 보존 손 잡았다

발굴·전승 협업 프로젝트 MOU
광주시 동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구와 문화전당은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전승, 문화상품 개발·유통 등에 관한 협업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전승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분야별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한 유·무형 문화유산은 시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전당은 전통공예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 것'을 지켜온 공예인의 창작의욕을 북돋고 전통공예인과 ACC가 함께 개발·제작한 문화상품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지역공예품 세계화에 힘을 보탠다. 이번 협업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 전통공예 작가들이 다양한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해 상품을 제작하고 아시아로 유통시키며 광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구 내년 혁신과제 보고회...57개 정책 제안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에 정책 추진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연관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구청 내 각 부서별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참여·협력', '낯은 관행 혁신'을 밑바탕으로 하는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27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혁신과제 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내년도 정책 중 사회적 가치 실현 등 3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제안한 혁신과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해 27개 부서에서 제안한 혁신과제는 총 57개였다.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카카오 톡플러스 친구' 운영을 비롯해 푸른길공원에 '사랑의 교복 상설매장' 오픈, 고장난 장난감 무상 수리하는 '뚝딱 장난감 병원' 운영 등이다. 남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보고된 각 부서의 혁신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내년도 전략 혁신과제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북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최우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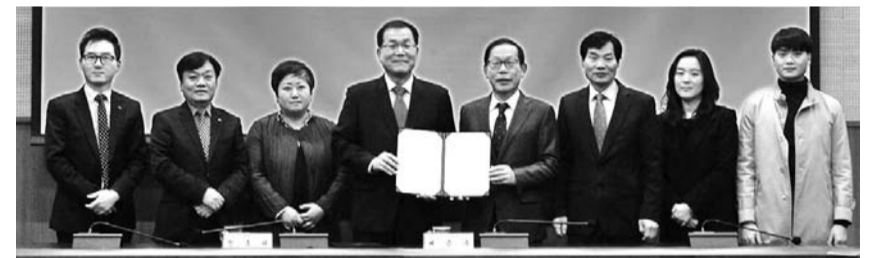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광주시 북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광주 지지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 수상과 함께 포상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전파·공유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수행의 적절성 ▲사업성과 및 효과성 등 평가항목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인터뷰 심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북구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가양득'을 위한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 및 상생 강화,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등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노사간 사회적 책임실현을 위한 공익활동, 워라밸 실현을 위한 일자리 나눔 협약 및 세미나, 버스·택시 등 운수업종 노사 갈등예방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노동권익 증진사업을 펼쳤다. 또 북구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 구민행복 노동 권익상담소 운영, 3대 기초고용 질서 캠페인,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토론회 등 4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세이프 클린' 협약을 체결해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힘썼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시 '블록체인...' 공직자 혁신교육

블록체인진흥협 부회장 특강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태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을 초청해 '블록체인: 하나의 광주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제4회 공직자 혁신교육을 개최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국제송금 플랫폼 '비트하이', 세계 최초 지역연호화폐(노원구), 제안평가시스템(영등포구청) 등을 개발한 (주)글로벌의 대표이사로 금융감독원, 국회의사당, 국내 대학에서 특강해온 블록체인 기술 관련 최고 전문가다. 이용섭 시장과 600여 공직자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2015년 무렵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들고,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적 역할

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늘어나는 블록체인 콘텐츠와 개발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2017년 겨울 사드로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베이징올림픽경기장을 가득 메운 4만여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온라인 게임 선수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의 힘을 강조했다. 스마트 시티의 편의성에 블록체인 같은 기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해져 지역에 대한 애정, 미래 일자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4차 혁명시대 하나된 광주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이용섭 광주시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공직자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매월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DJ센터·광주영어방송 광주 국제화 선도 업무협약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영어방송제 주광역시 주요 행사 홍보, 광주시 국제화 단이 지난 21일 다양한 홍보활동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을 통해 광주광역시 국제화 선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김대중센터와 광주영어방송은 상호시설 및 운영매체를 활용한 홍보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지역 외국인 및 해외방문객 대상 광

주광역시 주요 행사 홍보, 광주시 국제화 선도를 위한 전시컨벤션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도시 광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 MICE 사업 공동 개발과 더불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동홍보 활동 및 관련 행사 공동 주관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성과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